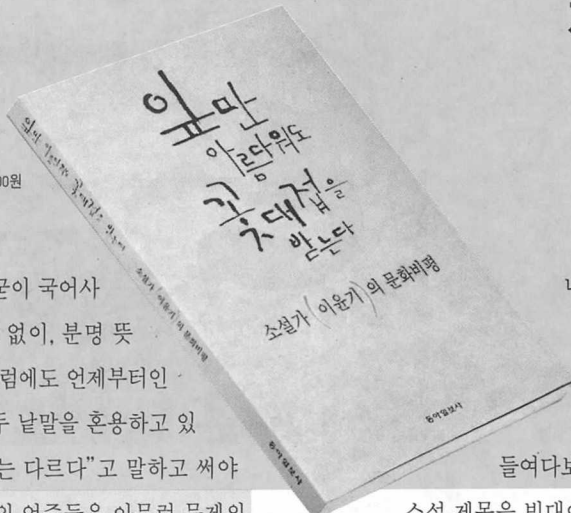


자칭 회색분자가 걷어가는 '제3의 길'

이운기의 《읽만 아름다워도 꽃대접을 받는다》



동아일보사/A5신/272면/7500원

'다름'과 '틀림'은, 굳이 국어사전을 들춰볼 필요도 없이, 분명 뜻이 다른 낱말이다. 그럼에도 언제부터인가 언중(言衆)들은 두 낱말을 혼용하고 있다. 문맥상 "너와 나는 다르다"고 말하고 써야 할 대목에서 대부분의 언중들은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너와 나는 틀리다"고 말하거나 쓰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국어오용사례'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 꼼꼼하게 따져보면, 우리 사회의 집단무의식을 엿볼 수 있는 실마리가 된다. '나'하고 주와 주장이 다르다면 그것은 틀린 것이라고 평가절하해온, '우리 안의 파시즘'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례인 것이다.

'좌우지간'의 정신

소설가 이운기는 최근 펴낸 에세이모음 《읽만 아름다워도 꽃대접을 받는다》(동아일보사)에서 다름과 틀림의 차이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상호이해는 자기와 다른 것은 '다른' 것일 뿐, '틀린'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한다. 다름을 인정하는 포용력 못지않게 지은이에게는 또다른 미덕이 있다. 시쳇말로 '외국 물' 많이 먹어본 사람들이 흔히 빠지는 사대주의적 문화관이라는 함정을 용케 피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지계를 지고 산길을 걷고 있던 50년대 중반에 미국인들은 시속 100킬로미터가 넘는 속도로 고속도로를 질주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산길과 고속도로, 자동차와 지계를 단순비교해서는 안되겠다. 지형이 빚어낸 문화산물의 차이일 뿐, 이로써 문화의 우열을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는 글귀에서 알 수 있듯, 다분히 상대주의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나라밖을 바라보는 시각이 문화적 상대주의라면, 나라안을 들여다보는 시선은, 그의

소설 제목을 빗대어 표현하면, '좌우지간'(左右之間)의 정신에 충실하다. 지은이는 스스로를 일러 회색분자라 하는데, 영어공용화론을 둘러싼 논쟁에서 이같은 입장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지은이는 민족어를 옹호해야 한다는 주장도 옳게 들리고, 외롭게 영어공용화론을 내세우는 북거일의 주장도 옳게 들린다면서 "꼭 어느 한쪽에 서야 하는가?"라고 되묻는다. 어느 쪽도 편들고 싶어하지 않는 지은이에게는, 그래서 재미있는 일화가 많다. 결코 유쾌하지만은 않았을 텐데, 지은이는 다음처럼 담담하게 회고한다.

"나는 경상도 사람인데도 경상도보다는 전라도 사람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고향사람들로부터는 전라도 사람 좋아한다고 따돌림을 받고 전라도 사람들로부터는 경상도 사람이라고 따돌림을 받은, 드문 경험의 소유자다. 나는 기독교와 불교를 다같이 좋아해서 기독교인들로부터는 이교도로, 불교도들 사이에서는 예수쟁이로 따돌림을 받은, 드문 경험의 소유자다."

지은이의 이력을 말하면서 뛰어난 번역실력을 빼놓을 수 없다. 이중언어 사용자 동아리에 속하는 그는, 말에 대한 관심이 남다르다. 이번 에세이모음에도 그의 언어에 대한 백과사전식 지식이 곳곳에 스며 있는데, 한 낱말에 대한 지은이의 '고증학'적 자세는 읽는이의 혀를 내두르게 한다.

부르주아와 아마존에 대한 설명이 대표적인 경우. 중세시대 유럽의 도시는 성채(bour)를 중심으로 발전했다. 도시가 확산되면서 성안에는

귀족이나 정신노동자들이 살고, 성밖에는 평민이나 육체노동자들이 살게 됐다. 이 정도 설명이면 어원은 분명히 밝혀진 셈이다. "부르주아(bourgeoisie)는 부르, 즉 성 안에 사는 정신노동자라는 뜻"이라는 것이다. 지은이는 부르주아를 설명하면서 상대어인 프롤레타리아에 대한 해석도 친절하게 달아놨는데, 이 낱말은 라틴어로 '자식밖에 나라에 바칠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뜻이란다. 여성왕국 아마존에 대한 설명은 상당히 인상적이다. 아마존은 '무(a) 유방(mamos) 여인들'이라는 뜻인데, "젖이 아주 없는 것이 아니고, 활 쏠 때 시위에 걸린다고 오른쪽 젖을 잘라버렸기 때문에 오른쪽 젖이 없었다"는 것이다.

우리 신화에 대한 관심 아쉬워

지은이의 에세이는 소설의 밑그림인 경우가 많다. 창작집 《두물머리》에 실린 소설의 주요한 모티브가 이번 책에서도 왕왕 발견된다. 앞에서 말한 '아마존'에 대한 이야기는 <진홍글씨>에 다시 나온다. '재탕'이라며 시비를 걸면 할 말이 없지만, 창작의 뒤안길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재미있는 일이기도 하다.

개인적으로 지은이에 대한 불만은 다른 데 있다. 이제 '삶의 적막함을 눈치챈 나이'에 이르러 "슬픈 노래를 부리기 시작"했으니, 서양신화에 대한 관심을 접고 우리 신화에 '귀의' 했으면 하는 것이다. 칼 융과 엘리야데, 그리고 조셉 캠벨에 대한 해박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신화의 인류적 보편성과 민족적 독자성을 지은이의 맛깔스런 글로 읽을 수 있다면, 이 또한 큰 기쁨이 아니겠는가 해서다. - 이권우 기자